



축협중앙회 발족 현판식 거행

— 축산기반구축·수급안정 역할을 다짐 —

축산진흥회와 농협의 축산관련기구의 업무를 통합한 축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족. 현판식이 1월 6일 오후 여의도 감사회관에 위치한 축협중앙회에서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등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정장관은 치사를 통해 「급증하는 육류소비추세에 당면하여 축산분야가 앞으로 대처할 과제는 △ 축산물 자급도제고 △ 축산의 생산성제고와 초식가축 증식기반 확충 △ 중소가축에 대한 관측사업 강화 △ 전농가의 부업축산 확대 △ 축산물의 균형있는 소비구조 정착이라고 강조하고 축협중앙회가 이러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양축농가의 안정생산을 도모, 농민소득 증대에 앞장서 줄것」등을 역설했다.

또 사료문제에 언급 국제사료곡물가격의 앙등에 대처, 볏짚의 사료화, 전답사료작물 재배 확대, 산지의 초지화 배합사료의 품질향상 등으로 사료의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김일로 축협중앙회장은 창립사에서 앞으로 축협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생산기반

을 구축하고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했다.



△ 축협중앙회 현판식(우에서 2번째가 정종택 농수산, 3번째가 김일로 축협중앙회장)

농민은 농작물 재해보상에 큰관심

— 농업기술자협회에서 여론조사 —

올해 농정(農政)에 대한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농작물재해 보상제도 실시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농촌후계자 육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상은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걸쳐 열리는 농민대학 수강생과 전국의 시·군지회 농민들을 통해 농촌여론을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한 농정건의 사항에서 밝혀졌다.

올해 집계된 농민관심 사항은 모두 33종에 2백13건이었으나 농작물 재해 보상제도 실시가 17건으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촌후계자 육성이 각 16건, 단위조합장 직선에 의한 참여제도가 15건, 농축산물 가격안정으로 증산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실질적인 퇴비증산시책의 추진과



△ 농정에 대한 농민의 관심은 재해보상 제도와 후계자육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 협회는 농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농업 재해 및 의료보험, 농업정책심의회의 활성화 농협 및 농민단체의 개선, 농축산물의 가격 보장, 벼신품종재배, 유통구조개선과 생산자 재 및 영농자금 지원, 농지제도 및 세계개혁, 농촌후계자 육성과 지도사업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농산물 표준 규격화 확대

— 농협, 대상품목 52개 품목으로 —

농협 중앙회는 농수산물을 크기별 거래단위별로 구분,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표준 규격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에 따르면 작년말까지 20개 품목에 달하던 규격화 사업 품목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32개 품목을 추가, 총 52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효과분석과 불합리한 점을 계속 보

완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물 표준규격화 사업 내용은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중·소·대등 크기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특·상·중·하품으로 구분한 뒤 거래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하는 사업인데 이 경우 포장기준도 통일된다.

세계 양계산물 생산은 40개국에서 90%이상

— FAO 보고서에서 —

전세계 양계산물생산의 90%는 상위 40개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이 유엔의 FAO 의 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1979년도 전세계 총계란생산량 약 2천 6백 5십만톤중 2천 4백 5십 3 만톤을 닭고기 약 2천 8 백만톤중 2천 6백 1 십 만톤이 각각 상위 40개국에 의해 생산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상위 40개국의 양계산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세계 상위 40개국의 양계산물 생산량(1979년)
단위 : 천톤

계란		닭고기	
1. 중	공4,395	1. 미	국8,526
2. 미	국4,060	2. 중	공3,476
3. 소	련3,618	3. 소	련2,100
4. 일	본1,990	4. 프	랑 스1,045
5. 서	독 900	5. 이	태 리1,025
6. 영	국 823	6. 일	본 960
7. 프	랑 스 807	7. 브	라 질 765
8. 이	태 리 641	8. 영	국 757
9. 스	케 인 586	9. 스	페 인 750
10. 브	라 질 540	10. 캐	나 다 652
11. 멕	시 코 501	11. 멕	시 코 401
12. 폴	란 드 490	12. 폴	란 드 370
13. 베	멜 란 드 346	13. 서	독 370
14. 캐	나 다 320	14. 베	멜 란 드 369
15. 루	마 니 아 320	15. 루	마 니 아 364
16. 동	독 317	16. 향	가 리 336
17. 향	가 리 250	17. 알	젠 틴 262
18. 체	코 235	18. 유	고 261

19. 벨	기 에	232	19. 오스트레일리아	252
20. 남	아 연 방	220	20. 이 스 라 엘	221
21. 한	국	213	21. 베 네 주 엘 라	221
22. 유	고	211	22. 남	아 연 방 220
23. 알	젠 틴	206	23. 터	키 213
24. 오스트레일리아		196	24. 이	란 211
25. 터	키	190	25. 필	리 핀 179
26. 필	리 핀	184	26. 체	코 171
27. 콜	럼 비 아	170	27. 불	가 리 아 170
28. 태	국	165	28. 동	독 145
29. 그	리 스	141	29. 포	루 투 칼 135
30. 나	이 제 리 아	140	30. 페	루 119
31. 이	란	136	31. 벨	기 에 117
32. 베	트 남	122	32. 나	이 제 리 아 115
33. 베	네 주 엘 라	116	33. 그	리 스 112
34. 말	레 이 시 아	115	34. 인	디 아 107
35. 불	가 리 아	112	35. 콜	럼 비 아 103
36. 스	웨 덴	112	36. 인	도 네 서 아 102
37. 오	스트 리 아	99	37. 덴	마 크 98
38. 이	스 라 엘	97	38. 태	국 93
39. 북	괴	92	39. 베	트 남 91
40. 인	디 아	85	40. 이	집 트 90

美 식량을 대외정책 무기로

로널드 레이건 차기미행정부는 식량을 대외 정책무기로 사용해야한다고 존 블록 차기농무성 장관이 말했다. 일리노이주의 대농장주인 블록씨는 레이건 차기대통령으로부터 농무장관에 임명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식량은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유지시키기위한 커다란 무기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20년간 보유하게될 최대의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농수산부, 도입곡류 확인 평가를

위한 사료수급 및 구매협의회 구성

-양계협회 등 실수요자단체 참여-

농수산부는 사료용 도입곡류의 반입상태 확인 평가를 위해 실수요자를 포함한 사료수급 및 구매협의회를 구성하므로써 사료원료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① 사료회사 및 실수요자에게 곡류도입의 공급체계 및 검사제도를 홍보하고

② 사료수급 및 구매협의회를 구성하여 하역과정 평가반의 공동입회하에 도입곡류의 등

급과 보관상태를 선별로 확인하여 평가서를 작성, 농수산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동협의회는 축산진흥회, 한국사료협회, 농협, 양계협회, 양돈협회, 하역보관업자 각 1명씩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실수요자 단체가 곡류도입 과정에 참여하므로써 사료품질 개선에 큰 몫을 하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건물과표 10~17% 올려

- 농가 축사는 30~35% 내려 -

1981년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0~17%씩 올랐으나 농가주택과 20명이하의 단독주택, 25명이하의 공공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은 올해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됐다.

내무부가 각시도에 시달한 내년도 건물과표 조정지침에 의하면 농가주택은 건물종류에 관계없이 올해보다 30%씩 축사·재배사등 농업생산시설 건물은 35%씩 일률적으로 과표가 인하되며 도시지역에 혼한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기와집과 철근콘크리트슬라브, 호텔 및 점포건물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저 10%에서 17%까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올랐다. 그러나 동일한 건축재료를 쓴 건

물일지라도 20명이하의 단독주택과 25명이하의 공동주택은 과표의 20%까지 각시도에서 재량으로 감해줄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금년도 과표가 가장 많이 오르는 건물은 시멘트벽돌로 구조도 쌓고 시멘트 기와를 얹은 집으로 서울의 경우 신축건물기준 1평당 과표가 13만 9천 2백원에서 16만 3천 2백원으로 17%가 오른다.

그러나 호텔, 백화점, 종합시장, 점포 주유소건물등은 주택과는 달리 예외지침을 마련하지않아 도시와 농촌의 구별없이 새로 마련한 과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읍지역에 20평짜리 벽돌조기와집을 짓는다면 새과표에 따른 과세표준액은 2백 30만 2천원이 되며 이에 대한 건물분취득세는 46만 4천원으로 산정,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감면률에 따라 정하게 된다.

농산물 유통정보망 확충

— 농협, 전산시설 5백대 운영 —

농협중앙회는 농산물수급안정을 위해 농산물유통정보망을 대폭확충하기로 했다.

농협에 따르면 연내로 유통정보요원을 현 2백명에서 3백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오는 84년까지는 모두 8백명을 확보하여 농산물에 관한 각종정보를 수집분석, 수급안정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농협은 또 중앙회와 단위조합을 직접연결, 물동량·가격등을 파악하는 전산시설을 크게 늘려 텔레타이프 통신망(TTY)을 작년말 현재 1백54대에서 올해 안에 75대를 증설하고

82년 1백대, 84년 1백대등 총 5백5대(작년말보다 4백51대증)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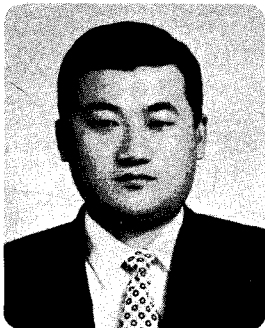
농협 전산시설이 5백5대로 늘어날경우 주산지단위조합엔 대부분 텔레타이프 시설이 완료케되는데 취급내용은산지의경우 식부면적, 작황, 생산 및 재고량, 출하동향을 중앙회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소비지역의 취급내용으로는 가격반입량 재고량 수요동향을 파악, 성수기에 농산물이 집중출하 되는것을 최대한 막아 생산농민의 소득을 늘리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농협은 농산물 유통정보망 확충사업과 동시에 소비도시를 대상으로 공판장및 공판장 분장을 새로개설,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펴나갈 방침이다.

사료협회 정기총회 개최

— 정태원 회장 유임 —



(정 태원 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12월 29일

11시 1980년도 정기총회를 당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정태원(홍성사료 대표) 전임 회장을 유임시키고 부회장에 차두홍(한일사료 대표), 정인범(우성사료 대표), 마용호(보거사료), 김재수(한성사료)씨를 선임하고, 전무이사에 황해결씨, 상무이사에 권 배씨를 각각 임명하였 이밖에 이날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 강태현, 김영희, 변종익, 이의선, 장동식, 이덕우, 이수빈, 민중기, 기정도, 강성배, 권용희, 김봉욱,
감사: 장인환, 유근주.

삼양유지사로 인천대두박가공공장 준공식

— 12월 17일 동사인천공장에서 —

삼양유지사로 인천대두가공공장 준공식이 지난 12월 17일 정오 인천시 중구 향동7가 45 동사공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 삼양유지사로 인천대두가공공장 준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병욱 동사사장의 경과보고로 부터 시작된 이날 준공식에는 전영춘 인천시장등 국내외 관련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동사는 탈지 대두박을 주산물로 일일 300톤을 생산할 수 있고 부산물로는 식용유등을 생산하고 원료투입에서 제품생산의 전과정이 완전자동화 되어 있으며 2개월의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12기의 사이로 시설도 갖추고 있다.

동사는 1979년 5월 서독으로부터 초현대식 기계를 도입 총60억원의 막대한 투자와 서독 EXTECHNIK사의 기술제공으로 지난 10월 정상가동에 들어가 작년 11월 현재 1만 3천톤의 대두박생산을 한 바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전중윤 동사 회장은 전영춘 인천시장과 인천세관장, 인천항만청장등에 대한 시상과 국내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가축시장 매년감소

—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

전국의 5일 가축시장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협이 조사한 「가축시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67년 6백67개에 달하던 전국의 가축시장이 매년 평균 15~20개씩 줄어들어 작년엔 모두 4백63개 시장으로 감소되어 15년 사이에 2백 개 시장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가축시장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생축유통근대화 시책에 따라 소규모 시장이 큰 가축 시장에 흡수 통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로망 확충에 따라 수송능력이 발달하여 가축의 운반과 이동이 쉬워 진데도 영향 받고 있다.

한편 가축시장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생축 유통근대화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가축시장 시설현대화 작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식량수급에 만전

— 정농수산, 새마을지도자에 공한 —

정중택 농수산부 장관은 올해 벼농사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평년작 수준에 훨씬 밀들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식량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鄭장관은 전국 새마을지도자·일선기관장·기업체장등 30여만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부 물지각한 양곡상인들이 정부미를 일반미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사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 이같이 말했다.

鄭장관은 이어 세계적으로 차츰 무기화 되

어가는 식량을 한 알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절약하는 습성과 잡곡의 혼식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鄭장관은 한끼에 한수저씩만 절약하면 연간 2백95만섬이 절약되고 지금보다 10%만 잡곡을 혼식하면 연간 3백70만섬의 쌀이 절약된다고 밝혔다.

鄭장관은 식량난을 의연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개선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제일제당 「백설햄」 출하개시

— 하루 15톤씩 10종의 제품생산 —

제일제당(주) (대표: 이수빈)은 지난 12월 9일 부터 햄·소세지·베이컨등 10종의 육가공제품 출하식을 갖고 「백설햄」이라는 종합 상표로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다.

동사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말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 2만여평의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 일생산능력 20톤의 각종 육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본 공장과 부대 시설을 완공한 바 있다. 동사는 햄, 소세지, 베이컨류 등 10여종의 기존제품 외에 앞으로 본래 스펀, 햄버거 등 2종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은 수육 90% 이상의 영양식품으로, 서독의 Rasting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관리를 하며, 전 유통과정의 완전 「콜드·

체인」화로 위생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가격면에서도 중간이윤 배제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제일제당은 육가공분야의 진출을 계기로 배합사료공장, 양돈장, 육가공장 등으로 연결되는 종합 「콤비나아트」 체제를 구축 축산업계 뿐 아니라 식품업계에 새로운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량종 개발로 육류가 충분해져

— 미국·불란서 유전학의 발전으로 신품종 개량에박차 —

의학·산업·농업혁명을 가져온 유전학의 급격한 발전은 이제 축산분야에서도 놀랄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유전학을 바탕으로한 잡종교배·인공수정등을 통해 프랑스 국립 농학연구소는 유량 3천 9백ℓ/년 생산의 유우와 매일 2kg씩 살이찌는 육우, 무게 30kg이상의 철면조등을 출현시켰다.

또 미국에서는 들소와 보통육우를 잡종 교배한 신품종 「비팔로」와 네바다 대학은 깃털 없는 닭을 개발, 털뽑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의 수고를 덜게했다.

또 돼지나 양의 갈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인공적으로 가슴을 확대한 갈비많은 돼지와 양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 잡종교배가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발견됐지만 유전학의 축산에의 응용은 팔목할 정도여서 2천년까지는 모든 사육동물의 인공적인 개량증식이 가능할 것이다.

벗짚-계분발효사료 제조에 관한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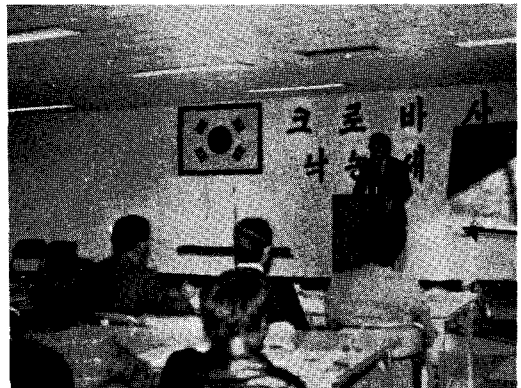
— 산야지역 조사료자급에 기여 —

서해농산(주) (대표: 김훈동)은 자급사료 개발로 생산자의 사료비절감을 위해 벗짚-계분발효사료제조에 대한 세미나를 수원, 충주, 청주, 안성, 춘천지역에 걸쳐 총 300여명의 양축가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초식가축의 경우 산야가 많은 지역의 산야 초이용은 노동력부족으로 활용이 어렵고, 목초지 조성에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벗짚과 보리짚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해결 양축가의 사료비절감에 기여할수가 있는데 착안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동물사료 연구실의 김춘수 박사와 이남형박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벗짚-계분발효사료」를 양축농가에 보급키 위해 개최된 세미나는 벗짚-계분사료의 특성, 사료제조방법, 사료급여방법 등이 광범위 하게 소개되었다.

동사의 세미나 개최지역은 다음과 같다.

- 수원지역 11. 9 서울우유제2공장
- 안성지역 11. 21 안성축협회의실
- 충주지역 11. 22 충주 상공회의소 회의실
- 청주지역 11. 23 청주 노인회관
- 춘천지역 12. 6 춘천단위농협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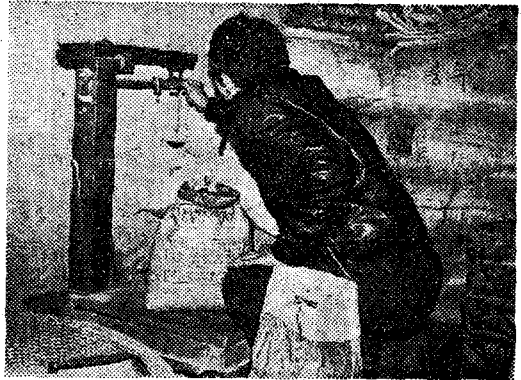
농수산물거래 미터법사용 의무화

— 농수산물 유통 근대화 기본작업 일환으로 —

농수산부는 농수산물 유통 근대화 사업의 기본이 되는 거래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위해 올해 미터법에 의한 법정거래단위 사용을 제도화하고 공인 계량기비치에 의무화하는 한편 비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공인계량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4년부터 농수산물 거래단위의 적관법을 폐기하고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토록 했으나 가마·말·되·관·근·접 등 비합리적인 관행거래단위가 개선되기는 커녕 여전히 농수산물 거래 단위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농수산물 유통근대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이 거래단위가 비합리적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수집상으로부터 농간을 당하고 소비자는 소매상 등 상인들로부터 속임수를 당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뿌리깊게 자행되고 있고 농수산물 포장개선이나 규격화 사업 또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수산물 거래단위가 이와같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도, 계몽에 계속



△ 농수산부는 올해부터 각종 농수산물 거래에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시켜 합리적인 거래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이 없는 데다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부는 우선 올해중으로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밑에 규격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품목별로 농수산물 규격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농산물의 대·소 단위 포장규격을 개발하고 농산물포장 연구원 같은 전문기구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의 농협 군산사료공장 준공

— 12월 23일, 일일 3백톤 생산 규모 —

농협중앙회가 38억 4천만원을 들여 건설한 국내최대의 군산 배합사료공장이 12월 23일 준공 가동됐다. 군산임해공단에 건설된 이 공장은 부지 3만평에 연건평 3천 6백평으로 하루 3백t 연간 9만t을 생산할수 있으며 장

기저장용 사일로 원료 및 제품창고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이공장 가동으로 농협사료 공급능력은 연간 23만 5천톤에서 32만 5천톤으로 늘어난다.

돼지·소고기 소비감소 추세

—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 반영 —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지역의 쇠고기·돼지고기 소비량이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축진에 의하면 지난 77년 서울지역의 쇠고기 소비량은 총 11만 5백마리(밀도살등을 통한 비공식유통량은 제외)에 1일 평균 3백 25마리가 소비됐으며 78년에는 총 23만 5천 6백마리에 1일평균 7백 18마리로 전년대비 50% 이상을 그리고 지난해에도 총 25만 8천 3백마리에 1일평균 7백 80마리가 소비되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 연간 소비량이 총 16만 9천마리(추정치)에 1일평균 5백 21마리로 작년수준의 65%선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불황의 심화에 따른 가

계가 크게 쪼들리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도 쇠고기보다는 감소세가 다소 완만하긴 하지만 최근 1일평균 소비량이 2천마리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간 총 소비량이 66만마리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소비의 절정을 이루던 79년의 총 68만 4천마리에 1일평균 2천 1백 12마리 소비추세에 비해 96%수준에 그친것으로 특히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수요부진에 값까지 뛰어서 1일평균 소비량이 1천 6백마리까지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소비가 감소된 것은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위축으로 고기등 부식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다 최근 고기값마저 올라 10월 이후부터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고기의 수요가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말해주고 있다.



○ **축협중앙회(회장:김일로)**: 부장 및 차장급 인사
(부장급)

감사실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태영
총무부장: 이봉희
지도부장: 이공수
진흥부장: 유남열
조사부장: 김상언

구매부장: 정충식
판매부장: 함규무
금융부장: 김동락
가축개량사업소장: 김선환
서울공판장장: 장세린

(차장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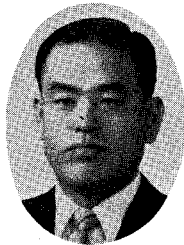
기술역	조종만	시범목장장	변호철
검사역	이성호	인천사료공장장	이래혁
기술지원단장	김순갑	부산사료공장장	허영호
사료공장건설단장	오성환	군산사료공장장	박관섭
서울공판장차장	박순용	총무부참사	오영균
사료검사소장	이희영		

○ **농업기술 개발 토론회**: 농업기술자 협회(총재: 류달영)에서 1980년도 기술부문 본상을 수상한 고창양계 신흥종사장은 건국 대학에서 개최된 농업기술 개발 토론회에서 (80. 12. 3) "양계기술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개선할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 **한인규** (서울농대교수) :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에서 창립된 아세아·대양주 축산학회(AAAP)의 운영위원겸 수석 부회장으로 피선 AAAP의 회원국은 한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스리랑카·파푸아뉴기니아·호주·뉴질랜드 등이며 제 2회 총회는 82년 필리핀에서, 제 3회 총회는 8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규)



(윤도진)

○ **제일축산협동사료공업사** (대표:윤도진) :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아미리 산 129에 신공장을 신축. 지난 12월 13일(토) 오후 준공식을 거행. 최신시설로 근대화된 사료공장에 한국축산과학연구소(☎ 이천 3701~4)를 개설.

○ **서해농장** <주> (대표:김훈동) : 제천지역 양축가 편익을 위해 직매소 설치.

제 1 직매소 (소장:박순석 ☎ 3722)

제 2 직매소 (소장:박관석 ☎ 2826)

○ **홀랜드 엑스포 개최** : 네델란드 무역진흥공사는 합상산업 전시회를 1월 13일~14일간 인천항 제 2 부두에 정박중인 「M·V·톨스칸디나비아」호에서 개최할 예정.

○ **이용남** (전 녹십자수의약품상무) : 한국 축산약품 공사를 인수하여 성원화학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로 취임.

주소 : 인천시 북구 효성동 265 ☎ 92-3811

○ **경기도 가축보건소 동부지소** (소장:구찬희) : 80. 12. 1부로 사무실 이전.

주소 : 이천읍 진리 산 7의10 ☎ 3680

시설 : 병성감정실, 전염병검진실, 축산물검사실, 약품실, 무균실, 소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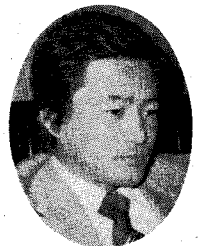
○ **삼양약화학** (대표:민경우) : 수용국 변경으로 전화번호 변경 ☎ (373) 8284 (대)

○ **나재춘** (유성형제부회장 대표) : 대전지역의 양계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70-35 (☎ 6-5034)에 닭고기 전문음식점을 개설. 삼계탕, 백숙, 닭찜, 닭도리탕, 닭내장탕, 캔터키치킨, 전기구이 등을 판매.

○ **한국바이엘화학** (대표:김길원) : 시세확장에 따른 1981년도 신입사원 및 중견사원을 모집중 축산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화학과, 경영학과 전공자 약간명을 모집하는데 오는 1월 10일 서류전형을 마친 1차시험 합격자들의 필기시험이 치루어 진다.



(김길원)



(김무진)

○ **중앙약품** (대표:김무진) : 동물용 약품의 원료합성 및 국산화에 주력하는 동사는 작년 말레이시아에 나이아신원료 500kg과 콕시롤 1천캔의 처녀수출 성공에 이어, 금년초 이마이신, 하이탄, 콕시롤에스, 다살균등 제 품수출을 추진중에 있다.